

2023. 4. 28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28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공예박물관 전시기획과

서울공예박물관장	김수정	6450-7010
전시기획과장	채영	6450-7040
담당자	김수연	6450-7045
관련 누리집 (메뉴)	craftmuseum.seoul.go.kr <소개> → <소식> → <보도자료>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2023년 ‘검은 토끼해’ 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위한 <토끼와 호랑이> 체험전시 개최

- 우리의 고전 전래동화인 ‘토끼와 호랑이’에서 영감을 얻어 이학민 작가의 호랑이와 검은 토끼 공예조형물을 전시
- 어린이 등 가족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앉아볼 수 있는 토끼와 호랑이 발모양 체험용 편의 의자도 배치
- 2023년 시민소통 공예프로그램 공모 당선작으로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옥상 공간에서 4월 29일부터 한 달간 전시

- 서울공예박물관(관장 김수정)은 2023년 계묘년 ‘검은 토끼해’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박물관이 있는 교육동 옥상에서 <토끼와 호랑이> 전시를 개최한다.
- 이번 전시는 공예작가들로부터 자신의 공예콘텐츠를 직접 제안 받아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2023 서울공예박물관 ‘시민소통 공예프로그램 공모 당선작’ 중 하나이다.
- 특히,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시민소통 공예프로그램에는 기존의

쇼윈도 전시 외에 공예작품을 박물관 곳곳에 설치하기 위해 “공예@박물관”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웠다.

- 이번에 선보이는 〈토끼와 호랑이〉 체험전시는 우리의 고전 전래 동화인 ‘토끼와 호랑이’에서 영감을 얻어, 토끼가 꾀를 내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를 골탕 먹이는 이야기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는데, 토끼는 ‘검은 토끼해’를 기념하여 검은 색으로 작업해 특히 눈길을 끈다. 또한 이 동물들의 발모양을 디자인하여 제작한 편의 의자들이 대형 전시그래픽과 함께 배치되었다.
 - 작품을 제작한 이학민 작가는 ‘장인정신(Craftmanship), 해학(Humor)’에 기반을 둔 디자인과 제작성을 추구하는 공예작가로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. 그는 홈데코, 가구, 아트토이,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고, 현재는 독립 디자인 스튜디오인 ‘학(HAK)’를 운영 중이다.

- 서울공예박물관은 2021년 개관 당시 공예가들과 함께 박물관 내 외부에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예작품을 설치하였는데, 올해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린이와 학부모의 이용이 많은 교육동 옥상에 작품 설치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휴게 의자를 배치하는 등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을 연출하였다. 교육동 옥상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설치된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.

- 이 전시와 함께 서울공예박물관은 ‘가정의 달’ 기념으로 〈어린이날 기획 공연: 연희집단 ‘THE 광대’〉, 〈‘오늘은 나도 장인’〉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.

-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“서울공예박물관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 바란다.”고 말했다. 전시는 서울공예박물관 야외공간인 교육동 5층 루프탑 공간에서 4월 2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.

붙임 1. 〈토끼와 호랑이〉 홍보 웹배너 및 작품사진

토끼와 호랑이

2023 시민소통 공예프로그램
공예@IN&OUT#1

참여작가 이학민
교육동 옥상

2023.4.29.
- 5.28.



jumping rabbit



tiger



paw mini stool_black



seating rabbit



paw mini stool_orange